

광한루원으로 역사·체험여행

남원 춘향제, 내일부터 5일간

남원시 광한루원 일원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축제인 제89회 춘향제가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4개 분야 24개 종목을 준비해 속종 임금 시대로의 화려한 역사·체험여행을 시작한다.

올 춘향제는 광한루 600년을 맞아 '광한춘몽(廣寒春夢)-사랑에 빠지다'를 주제로 광한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전통문화, 공연예술, 놀이체험, 부대행사 등이 열리며, 모토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퓨전과 대중공연의 강화이다. 축제 첫날인 8일에는 춘향제의 하이라이트인 춘향선발대회가 밤 7시30분부터 완월정 무대에서 개최되고 있다. 개막식을 겸한 개막공연 '춘몽(春夢)'은 9일 밤 7시 30분 완월정 무대에서 신관사포 생일잔치를 주제로 펼쳐지며, 개막공연 중 화려한 불꽃놀이 가 춘향할 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1년에 단 한번 개방하는 광한루각(보물 281호)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창을 만날 수 있는 '관소리 봄을



지난해 열린 남원 춘향제.

위해 서다'(11일 오후 2~3, 오후 3~4시)가 두 차례 마련되고 있다. 광한루원 정문에서는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관광객들을 위한 몽룡놀이터를 운영, 국내 최정상급 복화술사가 펼치는 복화술쇼, 마술공연쇼, 창작인형극, 길거리 퍼포먼스가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한루원에서 펼쳐지는 '춘향시대'에서는 사랑을 테마로 속종 임금시대

생활상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사포의 일상을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관객과 함께 즐기는 '신관사포 불나들이'와 춘향제의 역사와 전통에 신세대의 익살과 유머를 가미한 단막극 '코미디 춘향전'이 춘향제의 재미를 더해준다.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미션게임 '사랑의 주사위'도 광한루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참두릅, 지역 대표 효자 농산물 '우뚱'

순창 참두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까지 대형마트에 33톤, 전국공판장에 154톤 등 187톤을 출하하며, 32억여원 가량의 판매액을 기록하는 등 순창군이 두릅 대표 산지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순창 두릅은 전국 생산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대표 농산물로 본격적인 물량 출하가 시작된 지난달 11일부터 23일까지 가락동 시장 최고가(4.12일 기준)가 kg당 3만 8,000원까지 치솟았다.

기간중 평균거래가가 1만6,000원 가량으로 순창산 참두릅이 타 지역산 두릅보다 평균 3,000원 가량 높은 시세를 유지했다. 대형마트 및 홈쇼핑에도 kg당 2만 6,000원에 판매되는 등 타 지역보다 프리미엄급으로 인식되어 지역 농민들의 대표 소득작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처럼 순창 참두릅이 전국적 인기를 끄는 큰 원인은 대년간의 재배로 농가의 재배기술이 향상되어 맛과 품질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여기에 조공법인과 순창 구립 동계서순창 농협이 공산출하회를 조직해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출하하는 등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한 몫 했다. 또 군에서도 두릅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적극 육성하는 등 순창 참두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지리산허브밸리, 잠재관광지 공모 선정

남원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한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유망 관광지를 찾아 육성해가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지리산허브밸리가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란 현재 방문객이 많지 않지만 컨설팅과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 전개를 통해 인기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무료 관광지를 의미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리산 허브밸리는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로부터 ▲강소형 관광지 구축을 위한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역특화상품 개발 및 운영 ▲팝투어, 관광캐피탈, 관광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현재 남원시 관광과장은 "지리산 허브밸리가 남녀노소 연령층을 넘어 새로움과 재미, 힐링을 안겨주는 새로운 잠재관광지로 전국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 불법무기 집중단속기간 운영

임실경찰서에서는 5월 불법무기 집중 단속한다. 지난 4월 불법무기류 수거효과 위해 기간을 운영한 것에 총

포·화약류 불법 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를 단속할 방침으로 국방부·관세청·환경부 등 유관

기관과 수사과 등 관련 기능간 협업을 단속의 예정으로, 발견할 때는 경찰관서 및 112에 신고해 줄 것 제조법을 제조 시 처벌되므로 양기를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찾아가는 행복 임실 누리단 '호응'

관촌면 신전마을 다락골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임실군의 원스톱 통합 복지서비스인 '찾아가는 행복 임실 누리단'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행복 임실 누리단은 최근 관촌면 신전마을 다락골에서 주민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사업은 임실군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다양한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이날 행사는 관촌면 맞춤형 복지팀과 행복보장협의체가 함께했다. 심민 군수를 비롯해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협력을 위해 보건의료원,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 임실군 자원봉사센터, 임실군 기초푸드뱅크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자리

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봉사 활동에서 보건의료원은 한방 진료와 구강검진·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 손 마사지와 방향제 만들기, 푸드 물품 나눔 행사, 음식 제공 등의 봉사가 진행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훈 마을 이장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마을까지 찾아와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과 의료봉사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질이 올라가는 계기가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소외당하는 이웃이 없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제1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순창군은 최근 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순창군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10주간(매주 월요일)에 걸쳐 운영됐으며, 수강생 32명이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교육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 2개 팀으로 구성,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서 도시재생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의 도시재생사업 우수 사례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 초치원읍, 청주시 중앙동 등을 방문해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도시대학장인 충남대학교 황희연 명예교수의 특강과 함께 그동안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아이디어에 대한 팀별 최종 발표가 이어졌다.

또 광주대 김항집 교수, 김동호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팀별 대표 등이 참여하여 도시재생 발전방안과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 시간도 가졌다.

군은 이번 도시재생대학 운영 과정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앞으로 수강생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혈관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남원시, '튼튼 혈관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3월부터 9월까지 읍면동 23개소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튼튼 혈관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튼튼혈관 건강교실은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직사와 체조강사, 영양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만성질환 및 퇴행성 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신체활동 및 식생활 등 올바른 건강행태에 대한 교육, 건강측정(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통한 상담·교육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7년 기준, 남원시 고혈압 진단경험율은 28.8%, 당뇨병 진단경험율은

10.6%(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로 30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는 유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의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며, 심장질환·뇌졸중과 같은 합병증 발생의 원인이 되어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므로 예방 및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김성호 치매안심과장은 "고혈압·당뇨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와 적절한 신체활동, 영양섭취, 금연절주 등의 건강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